

보도시점 2025. 9. 1.(월) 11:50 배포 2025. 9. 1.(월) 08:00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가전략 아젠다 적극 추진

- 부총리 주재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한 해임 근거 마련, 안전 관련 경영 평가·공시 강화, AI 활용 안전관리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논의
- 새정부 국가전략 아젠다 및 대국민 필수 SOC 투자소요와 자구노력을 반영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1.(월)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등을 논의했다.

< 회의 개요 >

- ▶ 일시 / 장소: '25. 9. 1.(월) 10:3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 ▶ 참석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7명,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정부위원)
- ▶ 논의사항: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등

<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 >

공운위 위원들은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현황 및 원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예정인 다양한 정책들을 보고받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①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②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둘째, 공공기관들의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역량과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 관련 경영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①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의 주요사항으로 반영하고, ②경영관리 부문의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③또한 안전 관련 가점을 신설하여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를 안전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재 예방에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 등을 대폭 확대·조정한다. ①우선 심사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으로 확대하고(현재 73개 → 104개) ②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발생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③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 되도록 관련 지표의 배점을 상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분기별로 공시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공시를 강화하고, 2인 1조 위험작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한다. 그리고 지능형 CCTV, 드론, 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하여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는 한편, 안전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의 안전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운위 위원들은 최근에 발생한 청도 열차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작업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공공기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부총리는 “엄정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꼭 성공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 시키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그간 효율성에만 치중하여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꾸어 이러한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2025~2029년 공공기관 증장기재무관리계획 >

공운위 위원들은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경영목표, 투자방향, 연도별 자산·부채규모 등 재무전망을 담은 「'25~'29년 공공기관 증장기재무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동 계획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9.3(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공운법령' 상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 대상

이번 계획은 새정부의 국가전략 아젠다에 맞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도로 등 대국민 필수 SOC 투자 소요를 적극 반영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발전사 등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LH의 주택매입임대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 재생e를 활용하여 수도권에 전력공급 여력 강화, '31년 1단계 준공, '36년 전체 준공 목표, '29년까지 약 1조원 소요, '30년 이후 11조원 소요 전망

이와 같은 정책투자 확대에 대응한 재정여력 확충을 위해 기관주도의 자구노력도 병행해 나간다. 특히, 사업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저조·유사중복·低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5개 기관 부채비율은 '25년 202.2%에서 '29년 190.1%까지 단계적으로 개선(△12.1%p)될 전망이다. 부채규모는 '29년 847.8조원으로 '25년 대비 127.6조원이 증가하나, '27년 부터는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재무지표 전망(35개 기관) >

(단위: 조원)

구 분	'24년(실적)	'25년(A)	'26년	'27년	'28년	'29년(B)	증감(B-A)
자 산	(1,033.4)	1,076.4	1,153.4	1,211.1	1,257.3	1,293.8	217.4
부 채	(692.9)	720.2	761.2	792.8	828.3	847.8	127.6
부채비율	(203.5%)	202.2%	194.1%	189.5%	193.1%	190.1%	△12.1%p

공운위 위원들은 국가전략 아젠다 추진을 위한 투자집행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재무상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모두 중요하므로 이를 조화롭게 관리해줄 것을 언급했다.

부총리는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AI인프라 등 핵심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등 적극적 역할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공공기관 부채증가는 핵심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기관 책임 하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1)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주요내용

(참고2)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별첨) 부총리 모두발언

담당 부서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수영 (044-215-5510)
		담당자	사무관	전유석 (hunge1138@korea.kr)
	경영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한준 (044-215-5650)
		담당자	사무관	김희운 (gia0412@korea.kr)
	재무경영과	책임자	과 장	이민호 (044-215-5630)
		담당자	사무관	정효상 (jeongx@korea.kr)

1]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안전경영 법제화)**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여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유도(공운법 개정)
- **(기관장의 책임 강화)** 안전경영 원칙 위반 +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공운법 개정)

2] 안전 관리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 **(기관장 책임)**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의 주요사항으로 반영
- **(안전지표 배점 강화)** 경영관리 부문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예방 분야의 배점(현재 0.5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 **(안전 가점 신설)**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 신설

3] 안전관리등급 심사제 개선

- **(심사대상 확대)** 심사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으로 확대(현재 73개 → 104개)하여 공공기관 안전 관리 역량을 제고
 - * (기존) 최근 5년 이내 사망사고 발생 등 73개(공기업·준정부 51개 + 기타공공 22개)
 - (개편) 모든 공기업·준정부로 확대(+ 36개), 5년 내 사망사고 미발생 기타공공(△ 5개)
- **(건설현장 심사 강화)**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
 - ① 건설현장 심사 기관 : 현재 28개 → 40개 이상으로 확대
 - ② 건설현장 중점 심사 기관 : 현재 10개 → 20개 이상으로 확대
- **(안전 성과 지표 강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 배점 상향
 - ① ‘안전성과’ 범주 배점 상향(300점 → 350점) + ‘안전성과’ 범주 내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 지표 배점 상향(100점 → 150점)
 - ②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배점 상향(50점 → 70점) 등

- **(심사단 전문성 강화)** 심사단 인력풀 작성·관리, 사전 워크숍 진행을 통한 안전관리등급 심사의 일관성·전문성 강화

4] 안전 관련 경영공시 강화

- **(경영공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관련 경영공시를 강화하여 안전경영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① '산재 사망자수' 공시 주기 확대(기^중연 1회, 승인 기준 + ^추가분기별, 발생 기준)
 - ②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수' 공시 항목 신설 등
- **(정보공개)** 향후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잠정)에 '협력사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협력사 안전 강화를 유도
 - * 현재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 추진 중

5] 근로자 안전조치 강화

- **(위험작업 실태조사)** 기관별 2인 1조 근무가 필요한 위험 작업, 6개월 미만 신규자 단독 금지 작업 등 운영 실태조사 실시
 - * 실태조사 결과, 부실 기관은 개선 조치하고, 안전관리등급심사에 반영
- **(안전교육 강화)** 발주자, 수급업체 등 모든 계층이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6] 공공기관 안전 인력·투자 강화

- **(안전인력 강화)** 공공기관의 안전 인력 인센티브 부여를 유도하고, 지능형 CCTV, AI 등을 작업 현장에 도입·확산하여 효율성 제고
- **(안전투자 확대)** 안전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 및 지원
 - 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시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을 작성
 - ② 전체 투자와 별도로 기관별 안전 투자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 ③ 안전 투자 사업 예타 면제 또는 경평시 안전 투자로 인한 부채 예외 적용 검토

1**중장기재무관리 방향****【 기본 방향 】**

- ◇ 에너지고속도로·AI 등 국가전략 아젠다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핵심 SOC 사업 적기 추진
 - ◇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사업 재구조화 등 기관주도의 자구노력을 병행하여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
- ⇒ 핵심 정책사업 투자 및 공공서비스質 제고를 위한 동력 확보

(1) 중점 투자

- 에너지, SOC 및 정책금융 분야 등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기대감 확대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반영
 - 에너지고속도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전력망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고속도로·고속철도 등 SOC 인프라 확충 및 승객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열차 교체 등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택지 착수 조기화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속 투자·공급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맞춤형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및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2) 기관주도 자구노력 지속

- 5개년^{'25년~'29년} 기관별 자구노력 계획 수립을 통하여 재무위험요인 관리 강화, 생산성 향상, 재정건전성 확보
 - 특히, 정책적 수요를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 조정, 집행저조·유사중복·低성과사업 감축·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 지속

2 중장기 재무전망

【 전망의 기본 전제 】

-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주요 거시지표는 '25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활용
* 개별 기관에 적용되는 기관별 전문 지표는 자체 전망치 활용
- ◇ 분야별 정부 상위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국정과제 등을 반영하여 정책추진의 일관성 최대한 확보
* 에너지(가스·전기 등) 매출액 전망 등에 활용

(1) 자산

('24년) 1,033.4 → ('25년) 1,076.4 → ('29년) 1,293.8조원

- 분야별 투자확대 및 인프라 확충에 따라 '25년 1,076.4조원에서 '29년 1,293.8조원으로 증가(+217.4조원) 전망
 - (SOC) 택지·주택공급 확대, 고속도로 건설 투자 등으로 '25년 433.3조원에서 '29년 574.2조원으로 증가(+140.9조원) 전망
 - (에너지) 송배전설비·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으로 '25년 345.0조원에서 '29년 401.6조원으로 증가(+56.6조원) 전망
 - (금융) 새출발기금 등 정책금융 확대로 '25년 261.2조원에서 '29년 272.0조원으로 증가(+10.8조원) 전망

'25~'29년 자산규모 전망

(단위 : 조원)

	'24년(실적)	'25년(A)	'26년	'27년	'28년	'29년(B)	증감(B-A)
· 전체(35개)	1,033.4	1,076.4	1,153.4	1,211.1	1,257.3	1,293.8	217.4
- SOC(7개)	414.6	433.3	468.6	510.4	549.0	574.2	140.9
- 에너지(11개)	338.2	345.0	370.0	381.6	393.5	401.6	56.6
- 금융(11개)	246.2	261.2	275.4	277.5	271.0	272.0	10.8
- 기타(6개)	34.5	36.9	39.4	41.6	43.8	46.0	9.1

(2) 부채 및 부채비율

부채 : ('24년) 692.9 → ('25년) 720.2 → ('29년) 847.8조원

부채비율 : ('24년) 203.5% → ('25년) 202.2% → ('29년) 190.1%

□ (총괄) '29년 부채는 '25년 대비 127.6조원 증가한 847.8조원, 부채비율은 '25년 대비 △12.1%p 하락한 190.1% 전망

○ 부채비율은 '27년까지 점진적으로 하락, '28년의 경우 예보채상환기금 청산*에 따른 자본감소(△9.3조원)로 소폭 상승

* IMF 외환위기 관련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02년 신설된 기금으로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27년말 청산 예정

□ 분야별

○ (SOC) 공공택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29년 부채규모는 383.3조원(+103.0조원), 부채비율은 200.8%(+17.6%p) 전망

○ (에너지) 전력망 등 투자 확대로 '29년 부채규모는 307.8조원(+19.2조원), 부채비율은 한전·가스공사의 영업이익 개선 등으로 지속 감소하여 '29년 327.8%(△184.1%p) 전망

○ (금융) 코로나 시기 집행된 정책자금의 상환 확대 등으로 '29년 부채규모는 131.0조원(△0.7조원), 부채비율은 92.9%(△8.9%p) 전망

'25~'29년 부채·부채비율 전망

(단위 : 조원)

	24년(실적)	'25년(A)	'26년	'27년	'28년	'29년(B)	증감(BA)
· 전체(35개)	692.9 (203.5%)	720.2 (202.2%)	761.2 (194.1%)	792.8 (189.5%)	828.3 (193.1%)	847.8 (190.1%)	127.6 (△12.1%p)
- SOC(7개)	264.7 (176.7%)	280.3 (183.2%)	308.1 (191.9%)	339.4 (198.4%)	368.2 (203.7%)	383.3 (200.8%)	103.0 (17.6%p)
- 에너지(11개)	288.8 (584.9%)	288.6 (511.9%)	293.4 (382.7%)	297.3 (352.4%)	302.9 (334.6%)	307.8 (327.8%)	19.2 (△184.1%p)
- 금융(11개)	121.4 (97.3%)	131.7 (101.8%)	138.6 (101.3%)	133.6 (92.8%)	133.0 (96.3%)	131.0 (92.9%)	△0.7 (△8.9%p)
- 기타(6개)	18.0 (109.8%)	19.5 (112.5%)	21.2 (116.5%)	22.6 (119.3%)	24.2 (122.9%)	25.7 (127.2%)	6.2 (14.7%p)

별첨

기관별 재무 전망

(단위: 조원)

기관명	항목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5개 기관 전체 ¹⁾	자산	1,033.4	1,076.4	1,153.4	1,211.1	1,257.3	1,293.8
	부채	692.9	720.2	761.2	792.8	828.3	847.8
	부채비율	203.5%	202.2%	194.1%	189.5%	193.1%	190.1%
1 강원랜드	자산	4.7	4.7	4.9	5.0	5.2	5.4
	부채	0.8	0.7	0.7	0.7	0.8	0.8
	부채비율	21.0%	16.2%	17.4%	17.2%	18.4%	18.0%
2 공무원 연금공단	자산	22.1	22.9	23.5	24.0	24.5	25.1
	부채	5.7	5.9	5.9	5.8	5.8	5.8
	부채비율	35.1%	34.9%	33.3%	31.9%	30.9%	29.8%
3 국가철도공단 ²⁾	자산	19.5	20.4	22.1	23.8	24.6	24.7
	부채	20.5	21.1	22.7	24.0	24.7	24.5
	부채비율	무자본					
4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산	54.4	52.8	52.3	50.8	48.4	45.8
	부채	17.9	20.0	21.0	21.6	21.9	22.4
	부채비율	49.0%	61.0%	67.4%	74.4%	82.4%	95.9%
5 기술보증기금	자산	4.9	4.4	4.4	4.6	5.0	5.4
	부채	1.6	1.9	2.1	2.2	2.2	2.3
	부채비율	46.3%	73.9%	87.8%	90.1%	80.2%	74.9%
6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자산	0.3	0.3	0.3	0.3	0.3	0.3
	부채	0.2	0.2	0.2	0.2	0.2	0.2
	부채비율	149.5%	156.2%	149.1%	146.3%	144.0%	140.7%
7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	8.3	9.1	9.8	10.4	10.9	11.3
	부채	1.4	1.4	1.4	1.3	1.3	1.3
	부채비율	20.5%	17.6%	16.0%	14.7%	13.9%	13.4%
8 신용보증기금	자산	17.7	17.7	17.9	17.9	18.1	18.6
	부채	4.0	4.2	4.4	4.7	4.8	4.8
	부채비율	28.9%	30.9%	32.8%	35.3%	36.2%	34.9%
9 예금보험공사 ²⁾	자산	22.1	23.3	28	34.7	28.4	31.7
	부채	4.2	2.9	1.0	0.2	0.1	0.0
	부채비율	무자본					
10 인천국제 공항공사	자산	16.1	16.4	16.5	16.6	17.0	17.6
	부채	8.0	8.2	7.9	7.6	7.8	8.1
	부채비율	99.5%	98.7%	91.8%	83.9%	84.5%	85.6%
11 주택도시 보증공사	자산	6.5	9.3	10.2	8.1	9.2	10.2
	부채	1.5	2.1	2.8	1.1	2.3	3.7
	부채비율	31.3%	29.6%	38.9%	16.3%	32.9%	57.6%

	기관명	항목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12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³⁾	자산	29.3	30.1	29.9	29.5	28.4	27.4
		부채	24.7	24.9	24.5	24.1	22.8	21.5
		부채비율	531.9%	479.1%	459.7%	441.4%	401.1%	362.9%
13	한국가스공사	자산	57.7	56.1	53.8	51.5	48.0	43.3
		부채	46.8	44.9	42.3	39.3	35.3	30.0
		부채비율	432.7%	402.8%	365.2%	324.6%	279.0%	227.0%
14	한국공항공사	자산	4.8	5.0	5.4	5.7	5.8	5.8
		부채	1.5	1.8	2.1	2.5	2.7	2.8
		부채비율	44.9%	53.8%	66.6%	78.6%	85.0%	90.5%
15	한국광해 광업공단	자산	4.8	4.9	4.9	5.2	5.5	5.7
		부채	8.6	8.4	8.0	8.3	8.5	8.6
		부채비율	자본잠식					
16	한국남동발전	자산	14.2	13.9	15.5	16.6	17.6	18.4
		부채	7.3	7.3	8.2	9.0	9.5	10.4
		부채비율	105.6%	110.6%	112.0%	119.5%	126.5%	131.6%
17	한국남부발전	자산	13.9	14.2	14.7	15.4	17.0	17.9
		부채	7.4	7.8	8.2	8.7	10.2	10.9
		부채비율	115.6%	121.5%	124.0%	129.1%	147.9%	155.3%
18	한국농어촌공사	자산	16.8	18.1	19.4	20.6	21.9	23.2
		부채	14.6	15.9	17.2	18.3	19.5	20.9
		부채비율	648.2%	700.3%	754.4%	796.9%	845.2%	896.0%
19	한국도로공사	자산	87.1	90.8	94.7	98.0	101.0	103.7
		부채	41.5	44.3	47.1	49.1	51.0	52.8
		부채비율	91.0%	95.3%	99.1%	100.5%	102.0%	103.7%
20	한국동서발전	자산	12.9	13.5	14.2	15.7	17.0	18.4
		부채	5.8	6.2	7.0	8.5	9.8	11.3
		부채비율	80.6%	84.7%	95.9%	117.5%	136.2%	158.9%
21	한국마사회	자산	2.2	2.1	2.2	2.2	2.2	2.2
		부채	0.3	0.3	0.3	0.3	0.3	0.3
		부채비율	13.8%	14.6%	16.8%	17.1%	16.8%	13.6%
22	한국무역 보험공사	자산	7.7	8.6	9.2	9.7	10.3	10.9
		부채	3.0	3.0	3.1	3.2	3.2	3.3
		부채비율	62.2%	54.7%	51.6%	48.3%	45.7%	42.7%
23	한국산업 단지공단	자산	2.2	2.5	2.9	3.1	3.4	3.6
		부채	0.8	1.2	1.5	1.8	2.0	2.3
		부채비율	56.3%	88.7%	110.4%	130.3%	142.9%	169.5%
24	한국서부발전	자산	13.6	13.5	13.9	14.5	15.2	15.7
		부채	7.8	7.8	8.1	8.4	9.0	9.3
		부채비율	133.7%	135.5%	138.1%	140.1%	145.9%	147.6%

	기관명	항목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25	한국석유공사	자산	20.5	20.4	20.9	21.0	21.1	21.1
		부채	21.8	21.5	21.6	21.3	21.0	20.5
		부채비율	자본잠식					26,257.6%
26	한국수력 원자력	자산	72.9	74.9	80.9	85.5	89.7	93.8
		부채	47.4	47.6	51.6	54.4	57.3	61.0
		부채비율	186.2%	174.3%	175.5%	174.6%	177.2%	186.0%
27	한국수자원공사	자산	24.1	25.3	26.7	28.7	31.3	33.6
		부채	11.9	12.5	13.4	14.7	16.4	18.0
		부채비율	98.4%	98.1%	101.1%	105.3%	110.8%	114.7%
28	한국자산 관리공사	자산	14.7	19.5	22.0	22.2	22.0	21.6
		부채	10.0	13.2	15.4	15.6	15.4	14.9
		부채비율	213.7%	206.6%	235.6%	235.4%	229.9%	223.4%
29	한국장학재단 ³⁾	자산	11.5	12.3	12.9	13.6	14.1	14.7
		부채	10.5	11.2	11.8	12.4	12.9	13.4
		부채비율	1,010.5%	1,053.7%	1,053.6%	1,043.8%	1,035.9%	1,028.5%
30	한국전력공사 (별도)	자산	139.5	144.5	155.1	159.4	164.1	167.9
		부채	120.1	121.2	121.5	121.3	122.5	125.6
		부채비율	619.3%	519.6%	360.8%	318.5%	295.2%	297.2%
31	한국주택 금융공사	자산	55.2	60.3	65.2	62.5	62.5	60.6
		부채	38.3	42.4	46.4	42.8	41.7	38.9
		부채비율	225.9%	237.1%	247.0%	216.5%	201.1%	178.9%
32	한국중부발전	자산	16.1	15.9	16.7	16.8	17.1	17.4
		부채	10.1	10.0	10.3	10.4	10.7	11.0
		부채비율	170.9%	171.1%	161.3%	162.3%	167.5%	170.8%
33	한국지역 난방공사	자산	8.4	8.5	8.2	8.0	8.0	8.0
		부채	6.1	6.2	5.9	5.6	5.8	5.7
		부채비율	268.7%	267.0%	251.3%	236.6%	261.2%	241.6%
34	한국철도공사	자산	29.3	29.9	30.2	30.5	29.2	26.2
		부채	21.2	22.3	22.3	21.9	19.5	15.3
		부채비율	259.9%	289.6%	282.3%	254.2%	200.0%	138.9%
35	한국토지 주택공사	자산	233.7	245.5	273	307.2	340.1	362.5
		부채	160.1	170.2	192.5	219.5	246.2	261.9
		부채비율	217.7%	226.1%	239.0%	250.5%	262.1%	260.3%

* 1) 35개 기관 전체 수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한전 연결기준

2) 무자본 특수법인(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정 곤란

3) 정책자금 용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